

일자리 30만개 늘려 고용률 75% 넘긴다

- 충남경제비전2030 연계 '일자리 정책' 마련...본격 추진키로
- 청년고용률 50% 달성 목표...미래세대 일자리 기반 구축도

충남도가 매년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오는 2030년에는 도내 전체 고용률을 75%로 끌어 올린다. 청년 고용률은 2030년 5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수립한 '충남경제비전2030' 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성장 기조 지속,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약화, 신규 인력 수요 저하와 일자리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으로 일자리 수요·공급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했다.

일자리 대책의 비전은 '도민에게 희망을, 청년에게 일자리를' 으로, 전략은 협업 강화, 지방정부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전체 고용률 75%, 만 15~29세 청년 고용률은 50%로 잡았다.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30만개가 필요함에 따라 도는 해마다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기업유치를 통해 1만 2000개의 일자

리를 늘리고,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1만 5000개를, 교육훈련을 통해서 4000여개를, 창업을 통해서 1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취업 분야에서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서비스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우수 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활용하고, 월드 클래스(World class) 300기업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며, 뿌리산업 분야 우수 명장 및 달인 육성, 중소기업 탐방 및 취업관련 행사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늘린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사 유치, 청년창업의 공동체 조성 등을 추진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시니어 성공 창업 통합 지원도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먹거리 30선 오픈토크와 수출기업인 CEO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활동가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청으로 매월 명사특강 들으러 오세요”

4~12월 총 8차례 걸쳐 예술·인문학 강사 초빙 강의

충남도는 도청 직원과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예술 및 인문 소양 함양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총 8차례에 걸쳐 명사특강을 실시한다.

명사특강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악, 소설, 시, 회화 등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초빙하고 건강 및 인문학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진

행된다.

올해 일정은 ▲4월 27일 ‘인문학은 밥이다’의 저자인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 ▲5월 31일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교수 ▲6월 30일 국민주치의 오한진 박사 ▲8월 25일 따뜻한 시선으로 유쾌한 시를 쓰는 이정록 시인 순으로 진행된다.

또 ▲9월 22일 5000원 권의 율곡 이이와 5만 원 권의 신사임당을 그린 한국화가 이중상 화백 ▲10월 27일 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 ▲11

월 24일 풀꽃시인으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 ▲12월 20일 팟캐스트 ‘지대넓얏’ 진행자이자 시민의 교양 인문서 돌풍의 주역인 채사장의 특강이 계획돼 있다.

도의 명사특강은 관심 있는 인근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강의 일정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 관광객 2000만 시대 연다”

— 환대서비스 결의대회 개최…친절·청결한 ‘관광 충남’ 다짐

충남도 내 관광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남 관광객 2000만 도약’을 다짐했다.

도는 5월 3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도내 관광 관련 기관·단체와 사업체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대서비스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봄철 여행주간(5월 1~14일)을 맞아 친절하고 청결한 관광 환대 서비스를 약속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친절·청결운동 결의대회, 친절캠페인 및 청결운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1부 결의대회에서는 충남관광 대학생 홍보단과 충남관광 모니터단 위촉, 충남관광 환대 서비스 다짐 결의문 채택 등이 열렸다.

이어 2부에서는 온궁로 문화의 거리로 나서 친절·청결운동 참여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도 관계자는 “관광의 기본은 친절과 청결”이라며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서 찾아온 손님을 정성과 예로 따뜻하게 맞이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충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라며 친절·청결한 관광 충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충남 최초 '에너지 자립 섬' 탄생

- 18일 홍성 죽도에서 구축 사업 준공식...국비 등 26억 투입
-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100% 충당

마을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 섬' 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도는 5월 18일 홍성군 서부면 죽도에서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마을 주민과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 김석환 홍성 군수, 도의회 이종화·오배근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은 사업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죽도 에너지 자립 섬에는 201kW급 태양광 발전과 10kW급 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두 발전시설에서 일일 생산하게 될 전력은 1120kWh 규모로, 마을에는 800kWh 가량을 공급한다.

또 야간 등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없을 경우 1일 정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900kWh 규모의 전기 저장 장치(ESS)도 설치됐다. 이들 시설 설치에 든 사업비는 모두 26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8억 4500만

원과 도비 2억 5000만 원, 민자(한화) 15억 91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죽도 주민들은 화석 에너지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죽도는 연간 발전용 경유 사용료 8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7톤을 줄여 연간 4만 1000그루(1그루 당 0.005톤)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장기간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해 온 디젤발전시설을 활용한다.

한편 홍성 남당리 서쪽에 위치한 죽도에는 22세대 70여명이 거주 중으로, 마을회관과 해수담수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죽도에서는 지난 2003년 설치한 100kW급 발전기 3대에서 생산한 연간 24만 2000여kWh의 전력을 사용해 왔다.

충청남도 농사랑, 2016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충청남도 농사랑이 2016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원장 나운수)은 충청남도

농사랑이 “2016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

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6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은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사회공헌 활동 및 환경적 기여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를 거쳐 시상을 하게 된다.

충청남도 농사랑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착한 소비라는 브랜드 전략을 토대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참여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상생발전의 다양한 모델 제시 및 성과를 인정받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다.

지난 한해 충청남도 농사랑은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도내 대기업과의 판매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전성 검사 시행, 농가의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 내 6,000여 농가와 경영체가 참여 중이다.

농사랑은 또 추진 체계 모델이 특징적인데, 쇼핑몰 운영에 따른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하여 도내 다양한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어 농어가는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충청남도 농사랑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www.nongsarang.co.kr) 뿐만 아니라 네이버, 오픈마켓(G마켓과 옥션)과 농협A마켓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매주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